# 光州日報

광주 25/33℃ 목포 25/31℃ 여수 25/30℃

단기 4343년 (음력 6월 12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33호 1판 2010년 7월 23일 금요일

불꺼지지 않는 산단 최근 입주업체들의 잇단 증설과 신규 투자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심장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여수=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르포 '제2의 도약' 여수산단을 가다

# 수조원 투자 산업심장 진화중

## 업체마다 고도화 설비 잇단 증설
## 고품질·친환경 제품 생산 박차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세계 5위 석유화학 생산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기술력입니다. 비싸게 사들여온 원유를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찌꺼기까지 활용하는 것이죠"

지금 여수국가산업단지 곳곳에서는 공장 증설 공사가 한창이다. 입주업체들이 미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기업전략에 따라 잇따라 시설 개선과 고도화 설비 증설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22일 오전 GS칼텍스 여수공장 '넘버3'(제3중질유 분해시설) 컨트롤룸. 10여명의 직원들이 20여대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최근 설비 증설을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 '넘버3'의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이다. 가스 누출은 없는지,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등등. 인근 호남석유화학에서도 900여 건설 근로자들이 플랜트 증설 공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정유 고도화 설비인 '감압잔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VHCR·일명 넘버3)'를 완공하고 시운전에 들어갔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가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

61만5000㎡(약 18만6000평)의 부지에 2조6000억원을 들인 이 시설은 공사기간만 21개월이 소요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벙커C보다 값싼 원유 정제과정의 찌꺼기인 초중질유를 원료로 휘발유·등유·경유 등 고부가가치 청정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다. '지상유전'이라 불리는 이 설비는 국내 최초로 도입됐고 세계에서도 7번째 적용된 최첨단 기술이다.

GS칼텍스는 또 고품질·친환경 경유를 생산하는 '디젤 디왁싱 프로젝트'의 설비 준공을 마치고 지난 15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존 경유 생산 공정에 왁스 성분을 제거하는 장치를 추가해 친환경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한 것이다. 3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하루 생산규모는 7만 배럴이다.

권준오 영업팀 부장은 "원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며 "시설 고도화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휴켐스도 지난 15일 연산 6만t 생산 규모의 '제4 DNT 공장'을 착공했다. 이 공장은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오는 2011년 상반기 완공되며, 연 8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휴켐스는 제4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3기의 DNT공장의 생산량 18만t을 포함해 연 24만t의 DNT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2면으로 계속

/여수=박정욱·박성태 기자 jwpark@

■여수산단 주요 업체 신규 투자현황

| 회사명 | 신증설 공장 | CAPA(만톤/년) | 투자비용(억원) | 투자시점 | 완공시점 |
|---|---|---|---|---|---|
| 휴켐스(주) | 제4DNT/NAC 공장신설 | 6 | 1,000 | 2010 | 2011.6 |
| 여천NCC 3공장 | NCC | 5(에틸렌 기준) | 200 | 2009 | 2010 |
| 여천NCC 2공장 | NCC/BD | 35(에틸렌 기준) | 9,000 | 2011 | 2012 |
| GS칼텍스 | VHCR | 연매출 6000억원 | 2조6000 | 2008 | 2010.6 |
| 한화케미칼 | 가성소다·염소·EDC | 13만톤·12만·15만톤 연매출1000억원 | | 2007 | 2010.5 |
| 호남석유화학 | NC공장 | 25만톤(에틸렌) | 5200 | 2010 | 2012.10 |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 각기업〉

# 전남 노인 3명 중 1명 혼자 산다

## 광주·전남 12만명 육박…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전국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독거노인도 12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전남의 독거노인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남지역 혼자 사는 노인 수는 10만7680명으로 전체 노인 34만3861명의 31.31%에 이르고 있다. 광주의 독거노인 수는 1만1750여명으로 전체 노인 12만4000여명의 9.47%로 나타났다.

전남은 독거 노인이 전체 가구수(77만3430가구)의 13.92%에 달해 7세대 중 1세대가 혼자 사는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지난 2008년말 9만5993명이었던 전남의 독거노인 수는 1년만에 1만1687명이 증가했고, 광주도 매년 1000명 이상 늘고 있다.

전국의 독거노인은 올해 104만3989가구로 추정돼 지난해 98만7086가구에 비해 5만6903가구나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27만9845가구, 70~74세가 34만1579가구, 75~79세가 24만5771가구, 80~84세가 11만8294가구, 85세 이상이 5만8500가구였다.

유독 70대층에 독거노인이 많은 이유는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친 이들 세대가 자녀를 많이 낳기는 했으나 급격한 경제 개발로 인해 자녀들이 직장을 찾아 외지로 빠져나가면서 함께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이들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의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기초노령연금 수급 비율은 57.3%에서 지난해 69.0%로 11.7% 늘어났다. 광주시 역시 지난해 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9만5690명에 달해 전체 광주 거주 노인(12만4000명)의 77.16%에 달하면서, 올해만 국비와 시비 923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별다른 노후 보장책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녀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도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해 빈곤의 사각지대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독거노인 중 상당수가 수입이 일정하지 못해 폐지수집이나 허드렛일을 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역시 소득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2만~9만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윤현석·김지을 기자 chadol@

# 지방공기업 방만 경영 상시 감사

## 감사원, 하반기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감사도

감사원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전담해 감사하는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고위공무원 비리나 토착 비리 등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직감찰본부를 신설, 공직 비리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지방 공기업과 지방공사 등을 상시 감사할 수 있는 '지방특정감사단'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특정감사단은 국장급의 단장 산하에 지방 공기업과 공사를 각각 담당하는 2개 과로 구성되며 이르면 이달 중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지방 공기업의 부실 경영에 대한 감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지난달 광주시도시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1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데 이어 올해 하반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하철 공사 7곳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공기업 29곳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 비리나 토착 비리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는 26일 '공직감찰본부'를 신설해 공직 비리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공직감찰본부는 본부장(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산하에 특별조사국과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 감사청구조사국을 두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위직 비리나 토착 비리, 교육 비리 등이 잇따라 불거지는 만큼 감사원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